

북스

Books

소송 끝에 빛본 '레미제라블' 속편

코제트·마리우스

프랑수아 세레자 지음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레미제라블' (1862년)은 페르라세즈 공동묘지에 있는 장 발장의 무덤 묘사로 끝이 난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후 문학전문기자이자 소설가인 프랑수아 세레자가 '레미제라블'의 주요 인물들을 되살려 두 권의 소설을 썼다.



장 발장 이야기를 담은 영화 '레미제라블'(1999년)

들이 펼쳐나가는 아름답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원작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발장이 추구했던 정의, 관용 정신 등이 그대로 살아있고 기존의 인물들이 재등장한다는 점에서는 위고의 맥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인물들에게 새로운 성격 부여하고 색다른 인물들을 등장시켜 긴장감과 묘미를 더하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창조했다.

'코제트'에서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려 결혼까지 하게 됐으나 장 발장의 죽음 이후 그들의 결혼생활은 순탄치만은 않다. 그 와중에 '레미제라블'에서 장 발장과 코제트를 고향했던 테나르디에는 더욱 소름끼치고 치밀한 음모로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사랑을 위협한다. 테나르디에의 계략에 휘말린 마리우스는 살인죄로 20년형을 선고 받는다. 코제트는 그녀의 어린 아들과 함께 테나르디에에게 납치될 위기에 처한다.

'코제트'에서 내용이 이어지는 '마리우스'에서 코제트는 테나르디에에게 납치된 이후 온갖 굴욕을 당한다. 머리를 강제로 깎이고 더럽고 좁은 방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던 그녀는 남편과 고아원에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한다. 마리우스는 감옥에서 갓난히 탈출한 후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파리로 도망친다. 이후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원작의 냉혹한 형사 자베르를 베르자라는 인물로 부활시킨 점이 흥미를 끈다. 세레자는 '레미제라블'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자살을 택했던 자베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그를 되살려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아울러 당시 프랑스의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정세, 화려하고 방탕한 사교계의 모습과 달리 착목한 민중의 모습들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소담출판사·각 권 1만3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개념사 사전 출간

'문명과 문화' 등 5권

'개념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 역사학자 라인하르트 코젤렉



(1923~2006년)의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일부가 국내에 번역돼 나왔다. 한림대 한림과학원이 번역 작업을 맡았다.

원제는 '역사적 기본개념, 독일 정치·사회 언어 역사사전'으로 1972년 동료 학자들과 관련한 작업에 들어가 1997년까지 25년 동안 총 8권, 7000쪽이 넘는 분량으로 내놓은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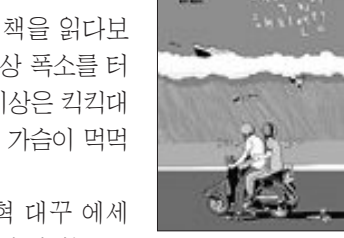
모두 119개의 기본 개념을 다뤘으나 이번에는 '문명과 문화', '진보', '제국주의', '전쟁', '평화' 5개 개념만 골라 우선 번역했다.

〈푸른역사·총 5권 5만2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책없이 해피 엔딩

김연수·김종혁 지음

장담컨대, 이 책을 읽다보면 최소 10번 이상 폭소를 터트리고, 100번 이상은 킁킁대고, 10번 정도는 가슴이 먹먹해 질 것이다.



김연수·김종혁 대꾸 에세이 '대책 없이 해피 엔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미 잡지 연재 당시 읽었던 글인데도, 똑같은 지점에서 웃고, 똑같은 지점에서 울컥한다.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소설가인 두 사람이 영화 전문 잡지 '씨네 21'에 2009년 1년간 연재했던 글들을 모은 이 책은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30년 지기 두 친구가 쓴 영화 '대꾸 에세이'

풀어낸 진솔한 에세이다.

한 사람이 먼저 글을 쓰면, 이걸 이어 받아 '연재 하듯'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핑퐁 에세이'가 가능한 건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나 무려 30년 세월을 함께 해온 두 사람의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다.

스페인 발라가에 얽힌, 시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김연수에 김종혁이 낸다 스웨덴 스포츠출품의 추억을 들이밀며 바톤을 받는다. 무려 영화에 출연하기까지 한 소설가 김연수(홍상수 감독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출연했다)와 영화광인 김종혁은 다양한 영화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 본다.

영화 '애자'를 보면서는 '좋았다가 무뎠다, 나쁘다가 무뎠다'한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동건 주연의 영화 '굿모닝 프러미드'를 보고나서는 '대통령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립을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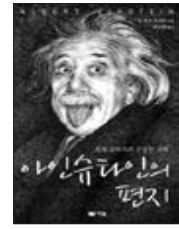
〈씨네21북스·1만20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전한다.

▲존 그리섬 포트 카운티=법정 스릴러의 대가 존 그리섬의 첫 단편 소설집이다. '타임 투 킬'의 배경이 됐던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 포트 카운티를 배경으로 진지하면서도 풍자적이고 감성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렸다. '피로 물든 여행' 등 정통 스릴러는 아니지만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은근한 감동과 여운을 (문학수첩·1만2000원)



세계 최상의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아인슈타인의 편지-천체과학자의 은밀한 고백=아인슈타인이 페기라는 여학생에게 띄우는 편지글 형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소설이다. 그의 삶의 전부를 담고 싶었던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는 불행했던 한 남자의 가슴속 사랑과 숨겨진 가족사, 평화를 사랑했지만 원자폭탄 제조 의혹을 받으며 FBI의 추적을 당하기도 했던 그의 이야기들을 편지 속에 담담하게 담았다. (거인북·1만5000원)



세계 최상의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조선의 서운관=조선의 왕립 기상대이자 천문서인 서운관(書雲觀). 중국과학사 연구의 세계적 석학 조지프 니덤(1990~1995년) 등이 조선왕조의 천문의기(天文儀器)들과 별자리 그림의 우수성에 대해 논한다. 저자들은 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만든 새로운 종류의 기기들로 대체될 때까지 조선이 소유하고 있던 천문의기는 (살림·2만3000원)



세계 최상의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춤의 유혹=음악평론가이자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숙씨가 쓴 춤 이야기. 아르헨티나 탱고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집시들이 추는 진짜 플라멩코는 스페인 플라멩코 바의 아름다운 공연과 어떻게 다르는지, 교회와 국가는 왜 사교댄스를 금지했는지, 왈츠는 어떤 성격 때문에 인기를 끌었는지 등 춤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춤의 사회·경제사를 들려준다. (열대림·1만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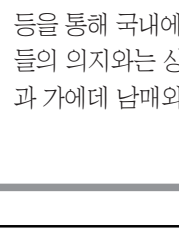
세계 최상의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CEO, 마음을 읽다=양창순 연세대 정신과 외래교수가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 CEO'에서 수년간 진행한 '심리 클리닉'과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들과 상담한 내용을 엮은 마음 경영서. 경제적 부와 사회적 명예에도 고독한 내면을 간직한 CEO들의 고민과 해법을 솔직하게 담았다. (위즈덤하우스·1만3000원)



세계 최상의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스윙바이=여수 출신으로 200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유희수씨의 첫 단편소설집. 연료 대신 종력을 활용한 우주선 비행 방식을 뜻하는 '스윙바이'를 제목으로 한 표제작을 비롯해 7편의 작품을 실었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형의 원수를 갚겠다고 나섰다가 전과자가 된 태권도 유단자 재영 등이 도장에 모여 삶의 의욕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담은 '청도관'도 수작이다. (문학동네·1만3000원)



세계 최상의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용의 손은 붉게 물들고=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새도우' 등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일본 작가 미치오 슈스케의 장편소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모와 살아야 하는 렌과 가에대 남매와 다쓰야, 게이세이 형제의 이야기를 담았다. (은행나무·1만2000원)

대인동삼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원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경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업무	800만원
동상동	(22,000평)	전당	100원
나주신교	(16,300평)	조경	350원
동림동	4,469㎡ (1,352)	준주거	350만원

건물매매

위치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해당지구	37억원	3,300만원	85억원
동림지구	7억원	1,700만원	32억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만원	200억원
상무지구	26억	6,500만원	100억원
해당지구	4억	1700만원	28억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011-608-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지향 1층)

금당 공인중개사

■ 감정가 이하

- 남구 서동 대지 467㎡(141평) 건물은 50평과 101평 2동 있음. 공시지가 4억5300만원 매도 3억1500
- 담양읍 상림사리 246평 공시지가 매도 1억9800만원
- 충장로 5가 바스도르 대지 27평 건평 32평 매도 2억1500
- 봉곡동 대림4리 대지 536, 건평 160 공시지가 19억4천, 대출 11억 매도 18억
- 금남로 2가 대로변 대지 490, 건평 982 공시지가 62억 매도 41억
- 4층 건물 대지 72, 건평 200 공시지가 3억 매도 2억8천
- 신안동 상림지 310㎡(94) 공시지가 3억4천 매도 2억4천
- 미북동 지동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매도 5억3천
- 대지, 두왕동 소방도로점 275㎡(83평) 1억4천
- 충장로 5가 5층 건물 대지 33건평 156 공시지가 3억 매도 5억
- 금남로 함입교로 뒤 주택 영영을 취합 공시지가 매도 8400만원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평 206평 6층 건물 5억
- 학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6건평 173 대출 3억 매도 6억5천
- 목포시 대지 413평 3층 건물 공시지가 5억2천 매도 6억2천
- 금남로 3가 대지 100 건평 311 공시지가 5억2천 매도 7억4천
- 금남로 5가 대로변 대지 83평 건평 319평 공시지가 12억5천 4층과 5층은 공실이고, 전세 1억에 월 600만원 매도 16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237 건평 1463 공시지가 40억 3천 일부는 공실이고 전세 5억3천 월세 2천 매도 38억

■ 매도·교환

- 두인동 4차선도로 196평 교회, 병원, 학원 등 취합 평당 370만원
- 원동 광주역 앞 대지 108평 건평 383평 부후 17개 배도 9억9천
- 27는 공실 전세 8500 월 850 매도 7억2천
- 모델 무문동 대지 103평 건평 336평 건축가능한 땅과 교환 9억4천
- 모엔 송정동 대지 290평 건평 367 평 건축가능한 땅과 교환 9억5천
- 생선동지 서구 서하동 650평 공장등 다용도 4억2천
- 생선동지 창고 등 다용도 상무구 비아 2722평 13억
- 용호동 유실수 있는 땅 575평 대지 10평포함 1억3천
- 전일주대지 상산유원지 박호동 399평 사할 취합 분할가능 1억 8500
- 북구 용호동 대지 147평 전일주대지 취합 7000만원
- 생선동지 서구 덕동동 1602평 공시지가 6억3천 매도 9억4천만원
- 지인동지 706평 매월동 서광주역 부근 매도 9억9천만원
- 화순동 능주동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아함, 1800만원
- 화순동 편안동 관리지역 등 임야 13,862평 공장 등 다용도 평당 1200원
- 서구 유촌동 생선동지 1631 평과 용고, 공시지가 14억 3천 월고는 1년 사할세 2200만원에 임대장임 22억 5천만원
- 원동인동 화정동 대지 919 평 건평 1459 평 10개 부후 3개 쓰리룸 2개 주택 있고 전세 1억원 월380 매도 6억3천 주택은 주인이 사할
- 고을상 영일지 광산구 우산동 988평 영일환경 풍물 6억 7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중구 금남로 5가 우라문 4거리 1층)

현대공인중개사

토지매매

- ▶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매가 14억 유투참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 매월동 준공업지역
 -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 광산구 대로변 토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 개별공시지가가 6억, 대출 3억~3억5천만원 가능
 -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센터, 사육시설
- ▶ 마북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사할성 뒤편 도로변, 생선동지 860㎡(260평) 매매가 7억 8천만원
- ▶ 벽진동 창고, 공장부지
 -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4천만원
- ▶ 광산구 1층 일반주거지역 매매
 - 산수동 1744㎡(528평) 매도가 1억9800만원
 - 박촌동 645㎡(195평), 648㎡(196평)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나주냉평 토지매매

- 풍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변, 집종지 2951㎡(893평)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매도가 2억9900만원

건물매매

- ▶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 매매
 - 상촌동 대지 278.5㎡(84.2평)/건평 662㎡(200평)
 - 1층상 2층, 3층, 4층, 유투, 투룸, 매매가 7억8천만원
 - 보증금 8천만원 월 700만원 공실없음
- ▶ 상가 및 목욕탕 건물 매매
 - 상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 대출 4억 8천만원 매매가 12억 5천만원

공장 창고 건물매매

- 광산구 우산동 대지 2975㎡(900평) / 건평 594.5㎡(180평)
- 비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매도가 7억 2천만원

T. 062)371-1900, 010-2086-0115
상무 우리법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특별분양(할인 9~28% 적용)

<총 1096세대>
분양률 95%이상
입주률 80%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구, 33평) 로얄층 / 164㎡(구, 49평) 로얄층
191㎡(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구, 43평) 로얄동 / 로얄층

- ▶ 112동 1002호 ▶ 113동 1004호
- ▶ 112동 1102호 ▶ 113동 1204호
- ▶ 112동 1201호 ▶ 113동 1404호
- ▶ 112동 1202호 ▶ 114동 1101호
- ▶ 112동 1302호 ▶ 114동 1301호
- ▶ 112동 1402호 ▶ 114동 1401호
- ▶ 112동 1403호 ▶ 114동 1402호
- ▶ 112동 1404호 ▶ 123동 402호

■ 주변 쇼핑타운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써
투자기회 상승 기대
입주민들의 찬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 상담문의 ☎
☎ 062) 367-1232 / H.P 010-2587-8552